

박세진·윤석철, 해장은 口뿐 아니라 耳로도... '한잔더' 조찬클럽

첫 협업 미니앨범 '더 브렉퍼스트 클럽 : 조찬 클럽' 발매
살랑거리는 타이틀곡 '카테일 파라다이스' 비릇 네 곡 실려

해장(解酲)은 입(口)뿐만 아니라 귀(耳)로도 한다.

듀오 '옥상달빛' 박세진과 재즈 피아니스트 겸 프로듀서 윤석철이 협업해서 지난 6일 내놓은 첫 번째 미니앨범 '더 브렉퍼스트 클럽 (The Breakfast Club) : 조찬 클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다.

박세진이 DJ를 맡고 있는 MBC FM4U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에 '윤석철 트리오'가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술친구로 이어졌다.

음식뿐만 아니라 재즈, 브라질 음악 등의 이야기거리가 안주가 됐고 이번 음반이 탄생하는 초석이 됐다.

브라질 삼바와 모던 재즈가 결합한 '보사노바', 1960년대 탄생한 브라질 대중음악의 뉴웨이브 격인 'MPB'(Musica Popular Brasileira) 등의 영향이 짙게 느껴지는 이번 음반은 상쾌하면서도 느긋하다.

살랑거리는 타이틀곡 '카테일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네 곡이 실렸는데 단정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인상 좋고 숨겨 좋은 세프가 내놓은 듯, 이국적이며 도회적인 깔끔한 풍미를 자랑한다.

최근 국내 대중음악을 물음인 컴퓨터 음악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어쿠스틱 악기 간 물리적 결합이 쾌적함을 준다.

2000년대 초반 보사노바, MPB 등의 장르가 국내에서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인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걸 좋아하는 대중음악 팬들 사이에선 박세진·윤석철이 빛어낸 음악으로 해장할 때 "시원하다"보다 "깔끔하다"는 말을 더 입에 달고 살 듯하다.

이 음악으로 어떻게 해장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백문이 불여일견(見)', 아니 '백문이 불여일청(聽)! 나긋나긋 사람 좋은 두 사람과 이번 음반에 실린 곡들이 찰떡궁합이다. 다음은 최근 흥대 앞에서 박세진·윤석철과 만나 나눈 일문일답.

-세진 씨는 윤석철 트리오의 '해비 리스너'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좋은가요?

"뻘한 재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앨범이 나오는 것이 항상 기대가 되는 타입입니다. 이번엔 '날 어떻게 놀라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박세진)

-세진 씨도 재즈 피아노를 공부한 걸로 알고요.

"대학 1학기 때 잠깐 다녔어요. 못 쳐서 그만 뒀죠. '내가 이 정도구나' 좌절하면서 그만 뒀어요."(박세진)

"아니에요. 재즈 피아노를 확실히 하신 분이예요. 들으면 알죠. 작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재즈 하신 분들이 많아요."(윤석철)

-윤석철 씨는 '옥상달빛'의 노래를 어떻게 들어왔나요?

"스무 살 때부터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인디 음악이나 힙합도 좋아했어요. 옥상달빛은 첫 EP 냈을 때부터 좋아했죠. 드라마 '파스타'에 삽입된 노래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 인디 신에서 제일 유명한, 반짝이는 존재였잖아요. 멋있다는 생각을 했죠. 음악이 참신하면서 메시지도 재밌고요."(윤석철)

-친분을 나누다 앨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술 마시다 보면 음악가들이니 어쩔 수 없이 음악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브라질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보사노바, 삼바, MPB 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석철 씨는 연주자라 보니까 아는 범주가 더 넓더라고요. 관련된 음반을 많이 추천 해줬어요. 이런 앨범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던 중에 '카테일 파라다이스' 얘기가 나왔죠."(박세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음반, 음악은 무엇이었나요?

"넓어요. 기본적으로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을 시작으로, 세르지오 멘데스, 마르코스 발레, 이반 린스, 리사 오노 등이요."(윤석철)

-앨범 소개글에서 두 분 다 주정뱅이를 자처하셨는데요. 음반이름도 조찬클럽이고 음주가 밤을 거쳐 아침까지 이어진다는 뜻인가요? 두 분은 술을 어떻게 드십니까?

"개인적인 성향으로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시는 타입은 아니에요. 술 마시다 동이 트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져요. 하하. 아무리 길어도 새벽 3시는 넘지 않으려고 해요. '조찬 클럽'이라는 앨범명은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에 아침을 먹으면서 샴페인 따서 같이 마실 수 있었잖아요. 여행 가면 호텔 조식에 꼭 샴페인도 있고요. 아침을 먹으면서 '샴페인 한잔장도 하자'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에 벌이 잘 드는 테라스 앉아서 조찬을 하는 느낌이지요."(박세진)

"어릴 때는 자주 밤을 썼죠. 아침에 국밥 먹으면서 소주 시켜 해장하고. 매년 그랬던 건 아니고 심할 때요. 하하. 이제 나이도 있고 견훤도 한 몸이라 그렇게는 못해요. 저 역시 '조찬 클럽'이라는 제목에서 아침에 하우스와인을 간단히 곁들이면서 먹는 것을 생각했는데 각자 술에 대한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내 얘기 한 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아요."(윤석철)

-음주와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어요.

"술은 좋은 분위기를 बे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커튼과 무드등뿐 아니라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주면 분위기가 더 멋있어지는 느낌이지요."(윤석철)

-두 번째 트랙 '베스트 러버'는 어떤 곡인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 보사노바 곡이에요. 연인 사이도 전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둘 만 알 수 있는 신호, 개그가 있으니까 베스트 프렌드이자 베스트 러버인 거죠. 말랑말랑한 감정으로 친구이면서 연인 같기도 한 설레는 사이의 감정을 담은 곡이에요."(박세진)

"정동적인 보사노바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게 제일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미 좋은 보사노바를 알고 있으니까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요."(윤석철)

-두 분은 대중음악 문법 안에서도 소수 장르 등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르적 한계에 부딪히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계속 해요. 저희는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고 많이 듣는데 다른 분들에게 낯설게 들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은 하고 있어요. 우리만 좋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앞으로도 재밌게 작업을 이어가려면 성과를 보여줘야죠. 다음에 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해야 합니다. 하하."(박세진)

-이번 음반 작업으로 두 분이 확실히 더 친해진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석철 씨가 이제 사촌 동생 같

아요. 사촌 동생보다 더 친해진 느낌입니다."(박세진)

"전 사촌 누나가 없는데 세진 누나가 그냥 친누나 느낌이에요. 아니면 대학교 동기인데 한 살 더 많은 친한 누나 같은? 하하."(윤석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악으로 해장 한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저희가 '카테일 파라다이스'에서 계속 '한잔 더'를 외치잖아요. 신이 나서 마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음반을 틀어 놓으면 해장이 될 거예요. 냉면처럼 은은하게 해장이 될 거 같습니다."(박세진)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면 해장이 될 거예요."(윤석철)

박세진·윤석철과 관객이 단체로 해장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두 뮤지션은 이번 음반 발매를 기념해 오는 6월2일 벨로주 흥대에서 공연한다.

BTS RM, 데뷔 10주년·군 입대 속내 털어놔



그를 방탄소년단 RM(28·김남준)이 속내를 털어놔다.

RM은 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시시콜콜하게 그려져라 잘 지내고 있다. 현재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히 가는, 발견해 가는 요즘"이라고 근황을 알렸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한없이 차오르다가도 금세 잊어버린다. 우리가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르신가. 괜찮으실까. 종종 아니 자주 궁금하다"고 했다.

RM은 "몇 번 말씀 드렸듯 갈수록 입을 여는 것이 참 어렵다. 그저 어른이 돼가며 짐목을 배우고 있다고 믿는다"며 "많은 것들이 슬프다가

"솔직히 궁금하고 두려워"

도 기쁘고 기쁘다가도 그저 슬프고"라고 속내를 털어놔다.

또 그는 "예전 내가 했던 말들, 영상들을 보며 혼자 낮 가려보고 이전 좀처럼 기억나지 않는 무뎠던 것들이 참 아쉽고 허허롭고 이상하고 자신이 있다가도 없고 막 그렇다"며 "솔직히 다녀온 뒤 여덟개 궁금하고 두렵다"고 군 입대를 앞둔 심정을 넉넉히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은 참 빠르고 모든 건 변하고 저도 변하고 더 이상 무책임하게 모든 사람을 요구드리거나 영영 매달리고 싶지만은 않다. 사랑을 찾아 해매기보다 사랑으로 있으면 노력으로 절가꾸면 사랑이 자연스레 찾아올 거라 믿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RM은 "곧 10주년이다. 시간과 마음의 먼지 더께가 쌓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만 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참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과 마음의 무게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라며 "저는 매일 소박하게 감사드리며 무엇이 내 일부였는지 상기해보면서 늘 그래왔듯 잘 지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서정희, 故서세원 언급 '금쪽상담소' 방송 감론을박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예고편 등장

방송인 서정희가 전 남편 고(故) 서세원을 돌아봤다.

서정희는 지난 5일 공개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예고편에 등장해 "아들이 저보고 전형적인 이단 교도 살듯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털어놔다.

과거 서세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서정희는 "(서세원이) 보지 말라는 건 안 봤고 연락하지 말라던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세원을 욕하는) 아이들이 원망스러웠다.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 믿었다.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다"며 폭행 당시를 떠올렸다. 서정희와 함께 출연한 그녀의 모친 장복숙 여사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저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상대를 성장

시키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에"라고 잘라 말했다. 서정희는 "열아홉살에 결혼하고 이제 제 나이는 환갑이 넘었는데 그러면 제 모든 삶은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방송에서 서정희는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힘겨게 해온 투병기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희는 1980년대 미모로 CF계에서 각광을 받았다. 지난 1983년 서세원과 결혼해 딸 서동주와 아들 서동찬을 낳았다. 두 사람은 일조부부로 알려졌으나 2014년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서세원은 관련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세원은 지난달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망했다. 이번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녹화는



서세원 사망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방송한다.

다만 한편에서는 해당 방송을 두고 감론을 박아 나오고 있다. 고인이 세상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정희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해당 회차의 방송을 미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상당수다. 고인의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은 지 얼마 안 됐고 결혼생활이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송사가 시청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가오갤3', 개봉 4일째 100만 관객 돌파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록"

마블 새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이하 '가오갤3')가 개봉 4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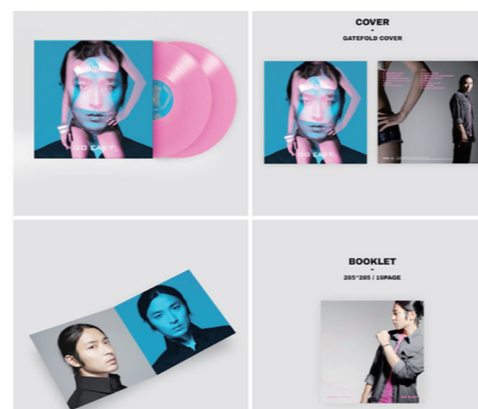
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3일 개봉한 '가오갤3'는 개봉 4일째인 이날

오전 기준, 누적 관객 수 102만 8475명을 동원했다. 이는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록이다.

또한 '가오갤3'는 국내 개봉 이후부터 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전체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

버벌진트 '고 이지' LP로 재발매...브랜뉴뮤직 설립 12주년 기념



스페셜 트랙 '좋아보여 2023' 오는 11일 선공개 예정

음반기획사 브랜뉴뮤직이 설립 12주년을 기념하며 레이블의 명반들을 바이닐(LP)로 재발매하는 프로젝트 '바이닐 바이 브랜뉴(V12YL by BRANDNEW)'를 선보인다.

6일 브랜뉴뮤직 측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첫 작품으로 버벌진트의 '고 이지'(Go Easy)를 선보인다.

2011년 발매된 버벌진트의 네 번째 정규앨범인 '고 이지'는 발매 당시 빌보드 케이팝 차

트 10위 권 안에 안착한 바 있다.

또 브랜뉴뮤직은 타이틀곡 '좋아보여'를 모던한 R&B 장르로 재해석하여 바이닐에 수록한다. 세련된 편곡에 버벌진트가 재능있는 래핑을 얹어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버벌진트의 '고 이지'는 오는 11일 오후 12시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스페셜 트랙 '좋아보여 2023'은 11일 오후 6시 선공개될 예정이다.